‘거룩한 옷’ 단벌신사와 숙녀

(시편 110:1~7)

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옷’ 단벌신사와 숙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거룩한 옷’ 단벌신사와 숙녀
1960년대 말 가수 김상희 씨의 “단벌신사”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단벌신사 우리 애인은 서른한 살 노총각님
단벌옷에 넥타이 두개 언제나 변함없죠
멋이야 없지만 마음만은 진실해
주머니가 텅텅 비어 데이트를 못해도
단벌신사 노총각님 당신을 사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단벌신사는 멋없고 돈 없는 출세 못한 남자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진실하기에 노총각을 사랑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의 가치관과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옷은 이 노래 이외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18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질책은 곧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자아의식 혹은 정체의식과 연관된 것이었습니

다. 이처럼 옷은 곧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거룩한 단벌 옷'이란 곧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아의식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앞에서 아내이자 남편이라는 자아의식을 갖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입니다. 회사에 나가 사장님 앞에서는 부하직원입니다. 교회에 가서는 교인이 됩니다. 이러한 자아의식은 곧 사회적인 의미에서 옷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며 사는 공간에서는 관계할 대상에 따라 자아의식의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단벌 옷 하나가 제공됩니다. 배우자 앞에 설 때에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남편과 아내라는 의식의 옷을 입습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대하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라는 옷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란 곧 내가 상대하는 가족이나 직장상사나 동료는 물론이고 심지어 내 몸을 포함한 모든 대상을 뜻합니다. 이렇게 내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의식의 단벌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백에는 어마어마한 흡입력이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공백을 만족과 기쁨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족과 기쁨은 존재의 목적이 아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쁨과 만족을 얻어야겠다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기쁨과 만족을 향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마음은 채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채우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단벌옷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가족을 대하며 직장이나 학교에도 다니는 것입니다. 김상희 씨가 불렀던 단벌신사 애인은 돈이 없고 멋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임을 상징하는 말이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거룩한 단벌옷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봅니다. 거룩한 옷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은 자들의 단벌옷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서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발휘하는 마음의 공백을 세상으로 채우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흡입구를 세상이 아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하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대할 때에 남편이나 아내이기에 앞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의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마음은 배우자가 아닌 주님이 계신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 삶은 시작됩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마찬가

지고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거룩한 단벌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상대에 따라 자아의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렇게 살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데, 3절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즐거이 행하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 전체 중에서 7편의 메시아 시가 있는데 마지막 시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발판이 된다.'라는 것은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패전국의 왕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해서 발로 목이나 등을 밟았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42~46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무지함과 몰이해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인용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 날에 설교할 때에 오늘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이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삼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구절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해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천사도 부활도 믿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행하시리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의 이방민족을 물리치고 우월한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메시아의 구원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원하던 구원과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세상에서 마음을 떠나게 하시는 것인데, 이들이 바라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메시아가 유대민족을 이끌어 이방민족을 쳐부수며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깨우쳐주시기 위해 다윗의 시를 인용하여 메시아의 승천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화로운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마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간단히 말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 얻어질 은총으로 이 세상일이 잘되는 것을 구원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신 구원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예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고 무관하게 되어버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야말로 온 피조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왕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심으로부터 세상에 대한 다스림은 시작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다스림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순절성령강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오순절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행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반복되어 인용되었던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 우리의 관계는 곧 거룩한 옷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권능의 규'는 곧 왕권과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성전과 번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내가 죽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번제단의 의미가 완성이 된 곳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율법에 비추어 어긋나는 행동들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단 하나의 이유로 생겨납니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하지 않고 이 세상의 대상들을 통해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는 것이 곧 죄입니다. 그러한 나를 번제단과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의식이고 거룩한 옷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기쁨과 만족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늘로 인해 생겨난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는 정체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라는 말씀은 곧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권능이 뻗어나갈 것임을 뜻합니다.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서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되어 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팔십 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으로 내려올 때에 청년과 같았습니다. 청년은 단순히 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간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로가 됩니다. 내가 늙어서 기력이 빠진 것은 주님이 하실 일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편견과 사고를 깨고 모두가 주님에게 청년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가 힘과 원기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팔십 세가 된 노인일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세상에서 찾지 않고 하늘에서 찾으려 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은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청년으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왕권은 내 육체의 연관성을 통해 실현되어 갑니다. 육체가 있기에 맺어진 가족들이 있고 회사직원들이 있으며 친구나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통치권이 흘러들어가는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 바깥에 마음을 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늘로 채우려는 자아의식을 가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통치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벌신사'라는 노래로 1968년에 구봉서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우식은 세상에서 실패하여 돌아가시게 된 아버지로부터 유산 하나를 받았는데 그것이 입으시던 양복 한 벌이었습니다. 그 양복과 함께 아버지가 남긴 유서에는 "헛된 욕망이나 사행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실하게 살라"는 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벨 보이를 하며 살아가던 우식에게 외국 손님이 팁 대신 복권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 1,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1,000만원은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복권이 너무나 소중했던 우식은 아버지가 주신 양복 안주머니에 복권을 넣고 바늘로 꿰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복을 집에 모셔둔 채 아내와 함께 새 집을 알아보고 살림살이를 장만하기 위해 들떠있었습니다. 그렇게 들떠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친구(서영춘씨)가 집에 와서 메모 한 장을 남기고 그 옷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제부터 그 옷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친구가 입다가 중국집 주인의 손에 들어갔다가 다시 옮겨져 쇼 무대에 올랐다가 넝마 주인에게 넘어가서 결국은 쓰레기장에 버려지게 됩니다. 찾아 헤매다가 쓰레기장에서 찾아냅니다.

영화는 아버지의 유언과 복권을 통한 삶의 역설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아버지의 양복 한 벌이 복권을 품게 되자 비로소 소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벌신사라는 노래 제목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의 양복은 진실 되게 하루하루를 근면하게 살라는 가치관을 담고 있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그 옷에 복권이라는 가치가 담김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디를 가나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라”라고 유서를 남기신 셈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모라는 자아의식을 앞세우기 전에 우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아의식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눈앞에 보이는 자녀에게서 기쁨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승진을 추구하고 월급 오를 것만을 기대하고 살지만 나는 직장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과 승진을 기쁨과 만족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단벌옷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단벌옷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그 옷이 이리저리로 옮겨지다 넝마가 되어 버려질 정도로 하찮게 여겨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하였다는 정체의식이 직장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가족들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단벌옷을 찾아야만 합니다. 가족 앞에서 직장에서 이 거룩한 옷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분 짓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주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부활은 세상으로의 돌아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만큼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부활이었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 밖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살아가는 삶이 세상 안에서의 삶이고, 세상 안에 있지만 하늘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삶이 세상 밖에서의 삶입니다. 이러한 구분됨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이 단벌옷은 영화에서처럼 멋없고 촌스러운 옷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신 주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는 옷입니다. 멋있고 풍족하고 감사를 넘치게 하는 옷입니다. 육체와 연관된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옷입니다.
이 거룩한 단벌옷을 오늘도 고집하며 단벌신사 단벌숙녀로 살아가시므로 가는 곳마다 왕 되신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이 남겨주신 단 하나의 유산은 거룩한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사는 단벌신사 단벌숙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왕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